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EWHA SAN FRANCISCO 2014

October 30 - November 2, 2014

Hyatt Regency SF Airport



교훈 진. 선. 미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은 **진, 선, 미**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 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 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Contents

인사말

02 | 이화여대 총장
04 | 총동창회 회장
05 |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06 |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07 |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 지회

08 | 총동창회 소식

10 | 이화, 우리들의 이야기

22 | 201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24 | 지회소식

37 | 동창회 장학금 소식

38 | 북미주 지회장 명단

39 | 2014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스케쥴

40 | 2014 총회 참가 신청서



총장 **최경희**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5대 총장 최경희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북미주 동창분들을 뵙고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변함없는 모교 사랑을 보내주시는 이화가족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속에서의 이화 역량을 확인하고 이화의 큰 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화는 창립자인 스크랜튼 선교사의 사랑의 정신과 이후 훌륭하신 총장님들의 선각자적인 정신과 여성교육을 향한 뜨거운 사명을 이어 받았습니다. 이화는 척박했던 땅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잠자던 조선의 여성을 일깨우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여성 교육의 산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화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화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고자 합니다. 이화의 역사는 늘 최초였습니다. 최초의 학사와 박사 배출,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최초의 병원, 최초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초가 있었고 또 최고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화는 또 다른 최초와 최고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도 꿈꾸고 세계 최고의 학과와 특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임 총장님들의 숭고한 교육 정신과 이룩한 업적을 계승하여 이 시대가 이화에 부여한 소명을 실천하면서 이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동창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소중한 동창 여러분을 뵙고 함께 하면서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북미주 지회연합회 여러분의 평안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제 15대 총장

최경희
생년월일: 1962년 5월 24일
소속대학 및 학과: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최경희 총장은 '세계 최고를 향한 이화의 도전과 혁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화 200주년을 바라보는 '혁신 이화(Innovation Ewha)'의 구체적 전략으로 미래 지향적 교육과 연구 혁신, 글로벌 인재로 성잘할 이화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전폭적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재배치, 학생. 교직원.동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이화공동체 네트워크 '이화 드림 앤 어치브먼트(이화 DNA)'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학력
1985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졸업
1987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1991 미국 Temple University 과학교육 교육학 박사

주요 경력

1984.9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조교수/부교수/교수
2005.4 ~ 2006.6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장
2010.8 ~ 2012.7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2013.2 ~ 2014.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
2014.8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수상
2002.6 환경부장관 표창
2012.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2013.6 근정포장



2014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총회를 축하합니다



총동창회장 **조종남** (의학 75)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년 총동창회 제 16대 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20여만 동창들의 소통의 창구로 봉사하고 있는 의대 75년 졸업생이며 산부인과 개원 의사인 조종남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2014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이미 작년 워싱턴에서 201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폐회할 때부터 뜨거웠습니다. 총회 동안 깊은 감동을 안겨준 워싱턴지회 임원들께도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치하드립니다. 미국의 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멋지게 행사를 치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창 여러분!
우리 이화는 이제 128년의 단단하고 튼실한 뿌리위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로서의 소임에 아름답고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으며 '이화 속에 하나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동창회 역시 찾아가는 동창회로써 각 대학(원), 과, 지회의 여러 행사에 임원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으며 20여만 동창들을 위해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년 중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동창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제 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 창립 128주년 기념 감사예배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기금모금 '대바자회'를 열어 행사장을 찾은 동창들이 오랜만에 모교 교정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우리의 지난 날 꿈을 추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5월 31일에는 작년에 이어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동창님들을 모시고 오찬과 함께 '캠퍼스 순례'를 하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고 총동창회 정보통신부 신설을 기념하여 처음 가진 제 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대회'의 수상작 시상식을 9월 17일에 거행합니다. 이번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대회'는 처음임에도 해외 동창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수상작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교에서는 제15대 신임총장으로 사범대학 최경희 교수께서 취임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이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 구축을 위해 공헌한 김선욱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취임식사를 통해 세계 최고를 향한 이화의 도전과 혁신, 발전을 비전으로 네가지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최경희 신임 총장의 행보에 미주지회 동창 여러분께서도 동참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제갈숙경 샌프란시스코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이번 축제가 화합의 장으로, '이화 속에 하나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잠언 16장 9절)"를 마음에 담고 10월 30일 행사에서 많은 동창님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제갈숙경** (관현 79)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제갈숙경(관현 79)입니다.

2014년 지회연합회 총회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금문교, 세계에서 가장 예쁜 거리인 롬바르드 꽃길, 시내 중심 언덕을 오르내리며 태평양 절경을 만끽하는 케이블카 여행은 낭만과 자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만날 수 있습 니다. 또한 "IT 산업의 메카" 실리콘벨리도 지척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회는 이번 총회가 북미주지회 모든 동창들이 모여 우리 이화인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총회 주제는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로 이화인들이 서로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ECC가 우뚝 서기 전, 가을이면 하늘하늘 피어나는 코스모스 향기를 맡으며 교정을 걸었고, 중강당 앞 목련꽃 그늘 아래서 웃음꽃과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아치를 이룬 오솔길 계단을 오르던 시절... 채플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추억을 되새기며 밤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가 이번 모임에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화는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128년의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을 모두 가진 여대는 이화 뿐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화의 역사, 그 한 페이지를 우리들이 수놓을 차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회 동창들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10월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겨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liff House, 1896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만납시다



총동창회 지회연합회
이사장 **오혜경** (영문 72)

안녕하십니까?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0월30일부터 개회됩니다. 작년에 여러분을 워싱턴 디씨에서 만난게 어제 같은데 올해는 낭만적인 금문교의 도시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마음이 설레입니다. 총회는 일년에 한번씩 북미주 여러 지역에 계시는 모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총장님 그리고 총동창회장님과 함께 우리의 모교 사랑과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통 화제를 나누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북가주지회의 제갈숙경회장님과 임원들께서 열심히 기억에 오래 남을 총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동창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고 또한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총회를 준비하며 또 성공적인 총회를 마치고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이화 동창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입니다. 정말 이화의 시작과 현재를 돌아볼 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우리 이화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대학이 되기까지는 우리 동창들의 참여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와 후배들 간의 끈끈한 사랑과 존경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밀고 끌어주며 함께 하는 동창간의 신뢰가 훌륭한 이화에 그리고 동창회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미주에 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신 우리 동창들의 지구력과 지혜로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등불 역할을 하시며 우리 동창회를 지켜 오신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동창회가 없었다면 이런 귀한 분들을 알지 못했을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귀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동창회는 그냥 이화를 졸업한 동창들의 모임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모임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총회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모교의 발전상과 새 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회장 인사하며 드린 농담이 있었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때는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할때는 가는 거라구요'. 꼭 오십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뵙겠습니다.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 지회

년도	주최 지회	지회장	졸업	전공학과
1976	워싱턴 디씨 지회	김정자	1962	가정학
1977	대뉴욕 지회	이해경	1950	피아노
1978	시카고 지회	전신애	1965	영문학
1979	대뉴욕 지회	장한희	1953	기독학
1980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	1949	가정학
1981	남가주 지회	김성자	1962	교육학
1982	시카고 지회	최순자	1966	의학
1983	대뉴욕 지회	조 연	1961	약학
1984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	1962	가정학
1985	워싱턴 디씨 지회	한순정	1959	서양화
1986	북가주 지회	이명희	1962	교육학
1987	대뉴욕 지회	이부자	1960	사회사업
1988	토론토 지회	여정자	1967	기독학
1989	시카고 지회	최경혜	1960	법학
1990	남가주 지회	이희성	1959	영문학
1991	북가주 지회	최충자	1962	사회학
1992	디트로이트 지회	김정숙	1962	의학
1993	휴스턴 지회	임예자	1965	사학
1994	대뉴욕 지회	임병대	1960	교육심리학
1995	워싱턴 디씨 지회	오성미	1964	영문학
1996	보스턴 지회	김경애	1970	의학
1997	토론토 지회	정인영	1968	물리학
1998	애틀란타 지회	김은숙	1968	사회학
1999	시카고 지회	윤미혜	1964	사회사업
2000	남가주 지회	김대훈	1966	화학
2001	디트로이트 지회	차승순	1970	기악
2002	올랜도 지회	하명숙	1966	체육
2003	북가주 지회	강영자	1964	기독학
2004	휴스턴 지회	김성혜	1972	식품영양학
2005	클리블랜드 지회	이선희	1970	교육심리학
2006	토론토 지회	강선희	1967	교육학
2007	대뉴욕 지회	최성남	1970	약학
2008	시애틀 지회	이정형	1963	약학
2009	덴버 지회	이미옥	1968	국문학
2010	남가주 지회	오명애	1974	장식미술
2011	보스턴 지회	조수헌	1976	수학
2012	벤쿠버 지회	강유순	1969	약학
2013	워싱턴 디씨 지회	오혜경	1972	영문학
2014	북가주 지회	제갈숙경	1979	관현악

총동창회 초청 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간담회

4월 16일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각 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김효신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 이 날 간담회는 2013년도 총동창회 활동 보고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보고, 제 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행사' 등 5월에 진행하는 많은 행사와 금년에 처음 개최한 총동창회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 '제 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 6월 12일 대바자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작년부터 총동창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화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 대학(원), 과 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제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해 거듭할수록 호응도 높아

총동창회가 젊은 동창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2012년에 처음 개최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벌써 3회째를 맞았다. 해마다 1년 중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열리는 이 행사는 이화동창 가족들에게 자녀와 함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내의 모교를 온가족이 방문하게 만든 뜻깊은 하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17일(토) 10시 부모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강당 앞에 모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미술용품과 정성어린 점심을 한아름 받아들고 이화 캠퍼스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250여 명의 참가 어린이와 500여 명의 이화 가족들이 함께 하여 수상자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조종남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해마다 자녀들과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교정을 거닐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이화 가족이 하나됨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상자 및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20만 동창의 큰 축제 <2014 동창의 날 행사>

모교 창립 128주년을 맞아 5월 30일(금)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주관으로 동창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외와 지방 지회, 각 과 및 단과 대학 등 약 2천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이번 동창의 날은 <올해의 이화인 추대>, <졸업 30주년, 50주년 동창 재상봉>, <회보 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금년은 '세월호 참사'로 <합창제>를 열지 않았으며 <올해의 이화인 추대>도 가무와 축하공연을 생략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열린 이 날 기념식은 총동창회 김효신(의학 84) 총무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조종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제 16대 총동창회장으로서의 봉사에 끝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동창들을 섬기며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를 만들고

특히 젊은 동창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더 열심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창들을 위한 봉사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4 동창의 날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욱 총장을 비롯하여 8월부터 총장직을 맡게될 최경희 신임 총장, 총동창회 고문 및 전 회장, 각 과와 단과대학 회장, 국내외 지회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이 날 행사를 축하하였고 참석 동창들 역시 오랜만에 찾은 모교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추억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특히 <재상봉 동창 행사>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은 1963년 12월 졸업 동창 대표인 윤순자(간호) 동창의 추억의 이화 캠퍼스 시절 이야기와 졸업 30주년 동창 대표 이채근(생미 84) 동창의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 인사로 참석 동창들의 마음을 20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한편 졸업 30주년을 맞아 각 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0개 과 졸업 동창들은 고운 한복 차림으로 미리 단상에 자리하여 총동창회 이경옥(체육 80) 회우부장의 진행으로 '올해의 이화인' 추대를 받음으로써 화려한 입장식 없이도 단상을 아름답게 빛냈다.

한편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는 <회보 경연대회>는 총5개 동창회보가 참가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은 초등교육과 동창회보, 은상 약학대학, 동상 경영학과, 장려상 국제사무학과, 특별상에는 남가주지회 동창회보가 수상하였다.



2014 동창의 날

동창의 날 행사를 마친 후 '올해의 이화인' 40명은 모교 김선욱 총장께서 총장공관 뜰에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하여 5월의 향기를 가슴에 담고 30년 만에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화 명물장터된 대바자회 열려

지난 6월 12일 동창들의 교류 활성화와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가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 주도 하에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에서 개최되었다. 전날 쏟아진 비에 더욱 말끔해진 교정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열린 대바자회는 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이화 명물장터를 이루었다. 각 대학(원), 과 동창회 임원들은 아침 8시부터 부스에 상품을 예쁘게 진열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때이른 여름 햇빛 속에서 온종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흥겨운 장터'를 만들었다.



2014 대바자회



남가주지회
이영강 (국문 66)

금광이 된 이화의 텃밭

이영강 (국문 66)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2학년 메이데이 축제날이었다. 친구랑 너, 나 하면서 어릴 적부터 한동네에 사는 남자애가 구경 좀 시켜달라고 졸라 그녀가 허락을 했고, 그 때 그가 같이 왔었다. 동급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나이가 들어 보였다. 덩치도 크고 키도 컸다. 우린 애초부터 축제에 참여할 생각을 안 했기에 그들을 데리고 학교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는 정도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우리 넷은 가끔 만났고, 주로 학교 앞 빵집에 마주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뭐가 통했는데 하루는 그가 말했다.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동안에 주위를 맴돌던 남학생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 때마다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싹싹 쓸어내 버렸는데 그는 달랐다. 그의 전화를 기다렸고. 또 약속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만나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헤어지기 아쉬워 집 근처를 몇 번씩이나 왔다갔다 반복했다. 내 이화의 텃밭에 발을 들여놓은 첫 남자였던 그, 그로 인해 그 텃 밭이 훗날에 금광이 되리라는 것을 그땐 정말 몰랐었다.

어느 날, 우린 교외선을 타고 야외로 나갔다. 그 당시에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송추라는 곳이었다. 가을의 끝자락이라 시즌이 지난 탓인지 관광객이 별로 없어 주위는 한적하고 쓸쓸했다. 점심때가 되어 둘은 식당엘 들어갔다. 식당이라는 이름만 붙었지, 그냥 시골집이었다. 밥을 먹고 나오니 마루 밑에 놓인 그의 구두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 두어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누가 구두 닦으라고 그랬지? 나는 구두 닦으란 말 안 했는데? 소년은 무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그는 구두끈을 천천히 매고 일어서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구두 닦으라는 얘길 안 했는데 네가 그냥 닦아놨으니, 돈 안 줘도 되지?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로 돈을 안 주고 그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뒤통수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는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다. 구두닦이 소년이 울상을 하고 바라보는 순간, 나는 무슨 큰 죄나 지은 듯 가슴이 철커덩하고 내려낮았다. 그를 따라 나가면서 얼른 지폐 한 장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말했다. 돈을 안 주고 왔더니 기분이 찜찜한데. 그럼 도로 가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톡 쏘아붙일 걸, 나는 그가 무안해 할까봐 도리어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줬어요. 그는 아무런 대꾸도 안 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한마디쯤 할 수도 있었건만 그는 침묵했다. 나 자신까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몹시 불쾌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여느 때의 나 같으면 그날로 바로 빠이빠이를 해버렸을 텐데도 내 의지가 말을 듣지 않아 우린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인연의 끈을 슬슬 늦추던 그가 결국에는 그 끈을 스르르 놓아버린 것이다.

만나기로 한 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겨울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천리길인 양 아득했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겨웠다. 그의 마음을 이미 다 읽었건만 나의 심장은 머리를 비웃으며 수없이 덜컥거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고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기까지의 순간은 숨쉬기도 힘들었다.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가 즐겨 입던 국방색 바지자락만 보아도 눈물이 났고 키 큰 남자의 뒷모습만 보아도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쥐고 있던 인연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없었으면 그리도 애타게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전화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미 돌아서버린 그였기에 나는 더 이상 비참해지기가 싫었다.

그와의 인연이 끊어지고, 30여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우연하게도 나는 그를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았다. 이 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영되는 한국방송으로 본국 뉴스 시간이었다. 그냥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의 커다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아나운서가 언급하는 그의 이름 석자도 뚜렷이 내 귀에 들어왔다. 순간, 내 눈과 귀를 의심했으나 분명히 그였다. 예전에도 겉늙어 보여 대학생 같지가 않고 아저씨 같았는데, 50줄에 들어선 얼굴 역시 나이보다는 늙어 보였다. 그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공을 세워 무슨 기업 혁신 대상인가를 받아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방영된 것이다. 아주 잠깐동안 이었는데도 그 화면이 내게 잡혔다는 것이 신기했다. 인터뷰 도중, 나는 그가 우리나라 재계에서 손꼽히는 유명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불현듯 구두닦이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음은 어인 일이었을까?

나는 지금 소설가라는 명칭 아래, 이화라는 이름의 텃밭에서 기차게 많은 소재를 캐내고 있다. 이 모두가 다 텃밭에서 일구어진 열매임에 틀림없다. 물론 가장 큰 수확은 그와의 이야기이다. 사건을 넘어 감정 묘사가 주축을 이룰 적에는 텃밭이 아닌 금광이 내 눈앞에서 번쩍인다.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비참함과 억울함, 또한 놀라움과 그 야비함을 다른 인물들한테도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면서 나는 줄줄이 노다지를 캐고 있다. 금광이 된 이화의 텃밭에서.



현 주 (현경애, 약학 55)

현모양처

현 주 (현경애, 약학 55)

이화 대학 첫 날 첫 시간에 신입생을 강당에 모아 놓았다. 총장 김활란 박사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이 있었다. 첫 인상이 너무 깨끗하고 고상하시다.

이화대학에 들어온 포부를 적어내라는 설문 조사 용지를 배부한다. 용지가 내 앞에 놓이자 일 초도 지체 없이 "현모양처" 라고 또렷이 네 글자를 적고 뒤집어 놓았다. 많은 학생들의 글 쓰는 소리가 쟁쟁 들려온다.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너 왜 안 쓰니?" "나 다 썼어"
"거짓말" "정말이야" 하며 용지를 뒤집어 보여 주니
"너 창피하지 않니?" "아니, 사실이야"
남들이 분주히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동안 나는 "현모양처"에 대한 나의 정의를 정리해 보았다.
어진 어머니--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두터우며 덕행이 높고 인자한 어머니
착한 아내-- 착실하고 어질고 선한 아내
내가 하고 싶은 궁극의 목 적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다짐했다. 자랄 때 보고 온 어머니, 숙모님, 백모님 모-두 "현모양처"라는 칭찬을 받는 것을 보아 왔기에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할지모르나, 고등 교육 받은 남편을 맞을려면 당연히 나도 고등 교육을 받아야지.

6.25 사변이 끝나고 복구에 분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에 터전을 찾느라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다.



나는 가정대학 의상과에 가고 싶었는데, 제1지망 약대, 제2지망 가정과를 지망했다. 약대에 합격됐다, 가정과에 간다니 주위 모든 분들이 나더러 안된다고 야단들이어서 약대로 결정을 지었다. 약대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게 한 가지. 6.25 사변으로 청년들은 군대에 가고 여자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라 여자 약사가 그 때에는 최고의 직업이어서 여자들의 선망의 직업이었다. 그 당시 학생들의 향학 열기 또한 대단했다. 서구문명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었다. 나도 유학의 꿈을 꾸고 있었다. 내 생각을 말씀 드리니 집안 어르신들이 처녀 혼자 어디를 가느냐고 완강히 거절이시다. 대학 졸업이 다가오니 선 보자는 혼처가 속속히 들어온다. 모두 거절하니 옥황상제를 구하느냐고 야단들이시다. 외국 물먹은 사람이면 선본다고 했다. 1950년대에는 유학하고 귀국한 사람은 아직 없을 때라 별 수 없이 나의 유학의 꿈을 허락 하셨다. 노처녀 보기는 싫으셨던 모양이시다.

유학 와서 결혼은 했고 아직 애는 없을 때라 "양처" 노릇만 하면 된다. 저 양반은 1952년도에 고국을 떠나 미국 생활에 익숙해 있으나 나는 일 년 밖에 안되었으니 학교 낙제 할까봐 걱정이 태산 같을 때다.

Cincinnati, Ohio에 한국학생이 꽤 있었고, 저 양반이 친구를 좋아해 주말이면 우리 집이 한인회관이나 다름없었다. 어쩌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말 마다 틀림없는 행사. 그 때는 미국에 동양 배추가 없어 양배추 김치이지만 먹고 싶어 오시는 손님을(주로 총각과 홀아비들) 마다 할 수는 없는 일. "양처" 노릇 한다고 혼자 다짐한 나 아닌가?

2년이 지나 애가 생겼다. 나는 공부를 중단하고 집에서 애를 키운다니까 공부를 계속 하란다. 나는 애 키우며 공부 못 한다니까 나를 학교 기숙사에 넣고 자기가 애를 키울 터이니 주말에 애를 보러 오란다. 내 애를 남의 손에 키우려면 차라리 안 낳을 것을 하며 울어 버렸다. "현모"를 고집하는 나더러 애를 남의 손에 키우라니 말도 안되지. 남의 손에 애를 키워 애가 잘못되면 나의 속상함을 무엇으로 변상한단 말인가? 이것이 "현모"의 갈 길은 단연이 아니다.

남편 학위가 끝나고 첫 직장이 Dayton, Ohio로 결정 났다. Ohio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나 내가 원하는 도시는 아니었다. 그 당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띄웠다. 물리학자들의 시세가 하늘을 치솟는다. 매일 몇 통의 우편 물이 배달된다. "좋은 조건에 월급은 이만큼" 나는 혼자 신이 났다.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말이 없다. 하루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 좀 더 크고 흥미 있는 곳으로 이사하면 어때요?" "가장이 직장에서 만족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직장이 불만이면 가정이 불행해져" 라고 하며. "나는 지금 이 직장이 아주 만족스러워"라고 한다. 그 후 아무 불평 없이 같은 집에서 26년을 양처 노릇하느라 애썼다. 애 셋 다 내 손으로 키웠고 모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제 구실 하는 것을 보시고 일가 친척이 자식 잘 키웠다고 우리를 칭찬하셨다.

젊었을 때 가끔 남편 친구 분들이 놀러 오면 부인들이 하나 같이 모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가 박사 학위 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남편 보기가 미안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모양처"를 고집한 것 추호도 후회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고 진정남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김정애 (법학 65, 법학대학원 68)
샌프란시스코 지회

고 진정남 선배님과 저는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잊어버릴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 1학년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신관 2층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남들이 하는 데이트도, 외출도 없이 기숙사 방에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방문이 열리면서 2층 담당 사감 선생님인 진정남 선생님이 누룽지를 갖고 와서 "정애야, 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다. 이거 먹으면서 해라"하고 누룽지를 주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감 선생님은 너무 어려웠던 분이라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는 도로 자리에 앉아 책을 보았더니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첫 인연이 되어 그 이후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누룽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2학년이 끝나고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한 후에는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제가 1974년 미국에 이민와서 이화여자대학동창회에 참석하였을때에 동창회에서 진정남 선배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설마 그 분이 미국에 계실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였습니다. 나중에야 이름을 알고 선배님에게 가서 "저 정애에요"하니까 저를 보더니 "너, 그 공부벌레"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후부터는 가깝게 친하게 지냈으며 저는 스승님처럼 모셨습니다. 한참 지낸 후에 저의 집에서 이화여대 동창회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저는 음식준비가 다 되지 못하여서 앨범을 보고 계시라고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앨범을 들고 와서 "정애야, 너하고 나하고 대학원동기다. 이 사진 좀 봐" 하셔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이였습니다. 그 때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도 얼마가지 못하고 갑자기 이 세상과 하직을 하셨습니다. 선배님과 몇 번이나 만났다 헤어진 인연이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그 분은 가셨지만 남기신 교훈은 많습니다. 선배님의 일생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았고, 마지막까지 이화여대를 위하여 동분서주 열심히 일하시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셨으며, 이 세상 하직할때까지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보여 주시고, 혼자서 보이지 않는 저 먼 하늘 나라로 떠나버린 선배님을 생각해보면 후배들에게 남기고 간 사랑의 꽃향기로서 느끼게 하고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귀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바칩니다.

"고 진정남 선배님에게"

선배님과 나의 만남은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우리는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고 뜨거운 심정의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선배님에게 선배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그 무자비한 죽음의 창을 빼앗지 못했고 눈물로서도 그 폭군의 죽음을 막지 못하였지만
지금 선배님은 하나님과 혼인하여 잔치상을 받았겠지요
백옥 다듬어 주춧돌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기둥세우고
헬몬산 잣나무 베어 석가래 얹어 사랑의 집을 세웠겠지요
사랑하는 선배님, 저도 시집가는 날 멀지 않았으니
구름연타고 오실 신랑위해 청사 초롱 밝히는 제가 되라고 훈계주신 선배님 사랑합니다.

2014년 8월 8일
후배 김정애 드림



1968년 대학원 졸업사진. 맨 뒷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고 진정남선배님,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본인
고 진선배님과는 기숙사사감으로서, 대학원 동기로서 또 미국에 와서 SF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최충자 (사회학과 62)

우리 이화여대가 올해 128주년이라니....
그러고보면, 샌프란시스코 동창 15명이 이대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때가 생각난다.

그 때 사진을 보면 모두들 얼마나 젊고 예쁘고 생기 발랄해 보이는지... , 28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를 지금 노년의 모습으로 변하게 했지만 이화와 함께 한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를 늘 신나게 만든다.



이화백주년 기념 행사 참석, 교정에서

이화 100주년 기념식은 다채로운 행사로 110명이 넘는 해외 동창들을 감격하게 만들었다.

도서관 건립기금에 협조했던 동창들의 이름을 도서관 벽면에서 발견하고 기뻐하던 일, 김옥길 총창님댁에서 유명한 냉면과 빈대떡을 맛있게 먹고, 냉면 그릇은 가져가도 좋다는 총장님 말씀에 소중히 싸들고 오던 일, 총장 공관 앞뜰에서의 만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부잣집 고풍스러운 동창댁의 저녁초대, 민속촌에서 각종 떡과 파전등 먹거리를 즐기던 일, 김옥길 총장님 시골별장 "문경새재 고사리 마을"에 묵으며 웃고 떠들고, 온천도 하고. 해외 동창들을 위해 모교에서 얼마나 애쓰고 배려 했는지, 감사할 뿐이었다. 세월은 가도 추억은 남는법!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함께 한 이화와의 추억은 하나하나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준다. 아! 우리 Ewha!

PS) 우리가 이대를 다니던 시절은 디카도 셀카도 없어 재학시절의 사진은 수학여행, 졸업사진 빼고는 많치가 않다. 그나마 미국에 오면서 한국에 두고 와서 아쉬움뿐이다.

기숙사의 추억

유양수 (식품영양 74)

아마도 삼학년 첫학기 중가고사 기한이었다. 시험공부는 지겹고, 공부는 시험의 무게만큼 지겨웠다. 시험 끝나는 날 해보고 싶은 일 계획에 머리를 짜다가 기숙사 한방의 동생이 갖고 있는 노란 머리의 캐비지 패치 인형이 눈에 들어 오는 순간 그 동생과 기발한 생각에 의기 투합하였다.

기숙사 일층에 의대생들이 애용하는 도서실이 있었다.해골바가지 만지면서 열심히 부위별 명칭 외우느라 자정이 되어오는 것도 잊은채 고개를 들다 창문을 바라보던 그 의대생 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보던 책을 덮고 문을 냅다 열고 쫓아 나오며 어어어 외치고. 우린 삼층에서 줄에 매단 노란 머리 인형을 도서실 창문에 내린 채 언제 괴성이 터지나 숨을 죽이며 기다리다 마음 급한 동생이 동태 파악하러 급기야 내려 갔던것. 깜깜한 창문에 흔들리는 노란머리 얼마나 기겁할 상황 이었을까만 침착하게 경비 아저씨에게 보고하는 사태.

우린 슬그머니 줄을 놓고,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다음날 아침 지난밤 일에 대해 시침떼며 속으론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하며 시험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를정도였지만 우리방 식구끼리는 더 도타운 이야기 꺼리가 생겼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즐거운 학창시절의 보석같은 추억의 한 토막이다. 우린 지금 사는 곳은 달라도 각자의 몫을 아름답게 이화향기를 널리 퍼뜨리며 살고 있으리라. 아 그리움은 그리운대로 살자.



기숙사 신입생

석화자 (교육 60)

1956년도 나는 이화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에 입학하였다. 그 때만해도 여자가 대학 가는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나에게 주어진 행운으로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가는 가슴 부픈 마음으로 기숙사 본관 미관에 배정을 받았다. 웅장한 석조건물 삼층에 자리잡은 나의 방을 선배의 안내로갔을때 내눈에 처음 침대가 보였다. 그 당시 침대 쓰는 것은 아주 귀한 특권이었다. 방 안에 있는 네 개의 침대를 본 순간 내 자리는 어디일까 하고 있는데, 선배께서 문쪽에 있는것이 네 침대야 하면서 침대 배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고참인 4학년 음악과 언니는 제일 좋은 창문쪽, 그 다음이 부산에서 온 사학과 언니 둘이 양쪽 벽 그리고 신입생인 나는 문쪽에 있는 침대이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마다 불편하고 바람을 맏게된다.

그것이 기숙사 생활의 첫 선후배 사이의 지켜야 할 침대 배치의 관습이며 신입생인 내가 겪어야 하는 몫이였다. 기숙사 생활은 마냥 즐거웠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고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였다.

이화에 발을 들여 놓은 그 날부터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것이 첫번째 숙제이다. 기독교 교양과목, 대강당에서 보는 채플시간 그 모두가 이화인이 되는 수순이다.

그 당시 기숙사에서는 일요일이면 중강당에서 예배를 보았다. 우리방에는 4학년 언니 외에는 모두가 비신자였다. 그 때에 일요일 아침이면 사감 선생님(최기덕, 미국에서 공부하신 검은테 안경을 낀 제법 위험있게 보이신 분)께서 각 방마다 점검을 하신다. 우리방을 노크할 때 비신자 셋이서 급하게 옷장에 숨었는데 그만 옷장의 문이 잠겨버렸다. 우리는 꼼작 못하고 갇혀 예배가 끝나는 한 시간동안 4학년 선배가 돌아올 때까지 그 좁은 옷장속에서 답답해하며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톡톡히 체험하였다.

셋이서 교회를 가지 않는 벌로 이렇게 갇혔으니 앞으로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자고 약속을 하였다. 차츰 우리 셋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다. 수많은 추억속에 이것만은 웃지 못할 추억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다. 그 경험을 교훈삼아 믿음의 밑걸음이 되 었나 보다.

50년의 세월이 흘려 2010년에 50주년 동창 모임과 함께 부산에 계시는 선배 두 분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지난 기숙사 생활의 추억을 얘기할 때 정말 우리들은 부산에서 서울 이화대학교에 유학을 잘 했구나..... 오늘까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게 가르쳐준 모교에 감사하며 나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신 부모님에게도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고 있다.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1957년)

한밤중의 귀신

제갈숙경 (관현 79)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

입학 며칠전 본관 기숙사에 모인 지방학생들은 갓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두려움과 앞날의 기대와 설렘으로 잔뜩 긴장한 눈치였다. 내가 배정받은 방에도 각 지방에서 올라온 네 명이 모였다. 모두들 어색해 하면서 서먹서먹함에 서로 말을 건네지 못했다. 첫날밤 잠자리에 들자 한명은 불을 켜놓은 상태라야 잠을 잘 수 있다 우기고, 다른 한명은 불을 끄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이 불을 끄면 그에 질세라 또 한명이 달려가서 다시 불을 켰다. 그만 좀 싸우라고 말려도, 내일이 입학식인데 우리도 잠 좀 자자고 하소연해도 두사람은 이예 아랑곳 않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장시간 실랑이 끝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친구가 손전등을 자신의 배에 얹어 붙잡고 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어쩌다 자다 일어나면 기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손전등을 들고 자는 친구의 모습은 한밤중 "전설의 고향"의 귀신 모양새라 놀라기 일쑤였다.

얼마후 방 배정이 다시 이루어져 그 친구들과 작별했지만 몇 십년전의 기억을 되돌아보니 이화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그 시절 그 친구들의 이름도 가물가물해졌지만 그 귀신같은 얼굴만은 내 기억속에 살아있다. 아주 가끔씩 지금도 그 친구가 손전등을 들고 잠자리에 드는지 궁금해진다.



1975년 입학식날

줌바열정

김선희 (영문 81)

긴 겨울끝에 찾아 온 희소식!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긴장 해소 방법중에 '춤' 만한 것이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내게 '줌바' 모임 결성은 긴 겨울끝에 찾아 온 희소식!

오늘 드디어 참석해서, 어머나, 그 열기에 몸과 마음이 후끈했답니다. 놀래라, 뛰어난 설교로 늘 우릴 감동시키는 은주씨, 근엄한(?) 인상이 강했었는데,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춤추곤 하는 말, 어머, 벌써 끝나요? 신선한 재발견이었 어요.

현대사회의 생활 습관, 자동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북미환경, 또 나이에서 오는, 신체 전반의 경직화는 초대하지 않은 여러 성인병을 불러 일으키는 주범임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애 키워야 하고, 산더미 같은 집안일 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우리의 핑계는 끝을 모르지요. 허나, 그 속의 비밀스런 진실은 우리의 의지 부족이 아닐까요?

돈 안 드는 걷기를 늘 하시고, 가끔은 줌바열정에 빠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틴음악의 정열에 몸과 마음이 나라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임을 결성해 준 홍현정 회장에 Bravo!



기저귀 차는 어른들

백복현 (영문 82)

기저귀 차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올해 일본의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기저귀 판매량을 앞설 전망이다.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지업체인 유한 킴벌리 측 통계로는 성인용 기저귀 매출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이십 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어른이 다시 아기가 된 걸까.

이 노인용 기저귀는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위한 요실금 팬티라는 것이다. 집이나 양로원에 누워 지내는 시니어용 기저귀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건강하고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저귀인 셈이다.

과거 생리대와 피임약의 생산, 보급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혁명을 가져왔다면, 이제 요실금 팬티는 시니어들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할 것임이 틀림없다. 일과 여가를 즐기며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는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노인회 파티에서 노래하고 힙합 댄스를 추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모님 세대가 이제 고생 보따리를 내려놓고 여생을 즐기며 사시는 것 같아 모처럼 즐거운 기분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욕 한인타운의 한 맥도널드 가게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나를 슬프게 한다. 노인들이 매장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쫓겨났다는 것이다. 나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다.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니 대부분의 네티즌이 관련된 노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남의 사업장에 가서 민폐를 끼쳤다면서 노인 고객들 잘못이라며 비난을 했다.

그분들은 누구인가. 어릴 적 친구와 싸우고 힘센 녀석에게 맞고 들어오면 누가 우리 아이를 울렸느냐면서 부지깽이를 들고 나서시던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닌가. 실수를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오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시던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이제는 허리통, 무릎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달고 사는 어르신들이다. 자식들에게 가진 것 다 주고, 남은 돈도 건강도 없이, 그저 시간 보낼 곳을 찾아 한인 경로회관에 놀러 오신 분들이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드시고, 식후에 커피를 즐기며 친구와 수다라도 떨 생각으로 그 가게에 들렀던 것이리라. 기저귀를 차고라도 우리말로 맘 놓고 담소하며 웃는 게 유일한 낙인 분들이다.

센터 포인트 몰 후드 코트 앞 좌석은 자기 나라 말로 웃고 떠드는 시니어 이민자들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시니어들이 간단한 빵에 커피를 마시면서 패스트 후드점이나 후드 코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곳 북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런데 누가 '착석시간 20분 제한'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는가. 이십 분은 커피와 햄버거를 먹고 가기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짧은 시간이다.

밖에서 맞고 들어와 눈물 글썽이던 우리를 잘잘못 따지지 않고 우선 감싸주시던 어머니의 치마폭이 더욱 간절한 날이다. 그 사랑의 치마폭에 안겨 잠시 울고 나면, 대문 밖에 나갈 용기를 다시 얻곤 했었다. 그 시절, 우리를 말 없는 사랑으로 꾸중하시던 어르신들을 우리는 똑같은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



기숙사 구관 앞 - 하윤애 (화학 73)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이름도 기억 할 수없는 40여년전, 1972년 봄날.
기숙사 구관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긴 머리에 짧은치마의 날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발과 미니 스커트를 금지하여 경찰들이 단속하고 다닌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르는척 입고 다녔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니가 유행했을때 대학에 입학했고, 유행이 가버릴즈음 졸업을 했어요.

딸들이 미니를 입으면 반대하진 않습니다.



대강당 - 장숙렬 (생물교육 60)

대강당 완공을 하고 김활란 총장님께서 세계적인 거목인 Dr. Den Mark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대강당에서 대대적인 선교활동을 펼쳤습니다. 예배시작에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을 수없이 부르면서 가슴에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 환희에 찬 희열은 정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때 세례를 받았지만 Dr. Den Mark 선교사님께 다시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이 다시 거듭났었습니다. 세례후 대강당 앞에서 195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과학관 - 임혜숙 (사생 71)

사진은 69년?
개나리 활짝핀 교정에서, 뒤에 보이는 건물이 과학관? 내 친구 양태주와 채플가는 길에서. 지금은 마산창원에서 삼남매의 어머니로, 40년만에 재회하여 여행했는데 그때로 돌아가는데 딱 5분 걸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절 그 곳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지금도 이 사진 보며 가슴이 행복으로 꽉찬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중강당 - 김채순 (교육 71)

1971 년 중강당 앞문인지 뒷문에서 졸업식을 끝내고 옷을 갈아 입고 나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유행대로 미니를 입고 있군요.



졸업식 - 김채순 (교육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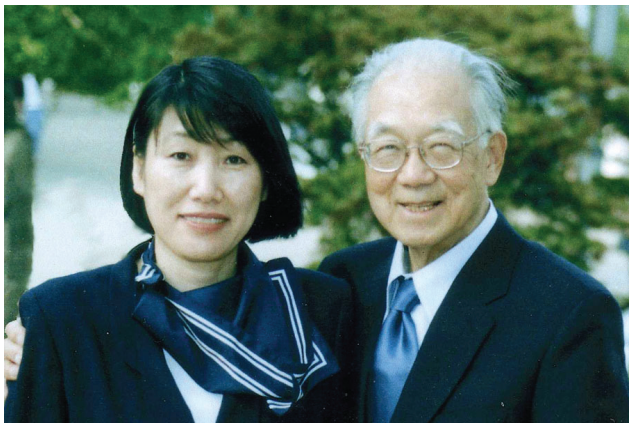
졸업식후 친구 김호정(교육심리 71)과 함께 꽃다발을 받고 한 컷 했지요. 아! 그리워라.



김영순 (조소 65)
대학교 2학년 1962년



김경선 (가정 61)
가정학관 실습중 김활란 총장님과 함께



박정혜 (체육 71)
2000년 4월 즈음에 대강당 아래서 고 남궁선생님과 함께



장선용 (국문 63)
동창의날 - 김갑순, 김자경 선생님, 주영희



장선용 (국문 63)
문리대 체육대회 가장행렬 (1959) - 신낙균, 최충자, 장선용



유명순 (영문 74)
78년도 중강당 앞에서 김은배 (국문) 김남희 (영문)와 함께



민부기 (도서 63)
1968년 당시 동창회장인 안순영 동창집에서

홍화자 (약학 65)







미래의 영향력을 위해 전통을 존중하는 이화 (2013년 총회 보고서)

2013년 워싱턴 지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이화여자 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 연합회의 총회 주제는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화"였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삼박 사일간 꽉찬 일정으로 진행된 총회는, 버지니아 소재 힐튼 맥클린 타이슨스 코너에서 열렸다. 많은 선배님들의 후원과 동문들의 협조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혜경 회장님을 위시하여 준비 위원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행사였다. 간단하게 매일의 일정을 돌이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날은 다른 주에서 오시는 동문들의 체크인과 총회 등록으로 시작되었다. 이화 동문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평화와 조화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전시 오프닝 리셉션도 이날 열렸다. 각각 다른 장르와 재료를 가지고 이화 정신을 표현해 보고자 한 전시였다. 이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주 지회 연합회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회 참석하지 않는 동문들을 위해서 종이접기 공예반이 제공되었다. 노독을 풀고 친교를 위해서, 가라오케방과 스위트룸에 와인바를 삼일밤 내내 오픈하여, 간식과 더불어 동문들이 교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였다.

둘째날 개회식으로 시작된 하루는 일부는 합창 연습, 라인댄스, 종이 공예, 또는 루레이 동굴 관광으로 모두들 다양하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 했다. 오후에는 김인숙 박사의 건강 강좌와 이정실박사의 문화강좌가 제공되었고, 총장님과의 만찬 순서에는, 특별순서로 박지연 동문의 성악과 이은숙 작가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오혜경 지회연합회 회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강유순 이사장, 김선욱 총장, 새론 래이더 이화국제 재단 회장, 양옥경 처장 등의 연설이 있은 후, 만찬은 각 지회별 탈랜트 쇼로 마무리 되었다.

셋째날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워싱턴 디씨 관광이 있었고, 특히 내셔날 갤러리를 방문하여 미술 특강을 들었다. 최수영 박사의 건강강좌와 이소영 박사의 법률강좌, 그리고 이은숙, 이화진 작가의 아트 워크샵으로 이어졌으며, 저녁만찬으로 피날레를 지었다. 만찬 중에는,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인 마크킴의 축사로 시작하여, 미아 정 교수의 특별 피아노 연주와 죤 우의 재즈 피아노 연주로 1부 순서를 마감하였다. 2부는 국립보건센터(NIH)에서 탁월한 경력으로 존경받으시는 권경주 박사의 기조 연설로 시작되어, 재이슨 문의 독창, 그리고 구성희 박사의 지휘와 이정희 동문의 반주로 합창 연주가 있었다. 죤 우는 댄스로도 재능을 보여 주었고, 작년도 탤랜트 쇼 수상작 다시 보기와 올해의 수상 그룹 시상식도 있었다. 넷째날이자 마지막 날, 아침에 요가와 스트레칭 순서로 그간의 피로를 풀고,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아쉽게 나누고, 홍서영 동문의 부군인 모세 김 목사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무리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진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화 사랑을 느꼈고, 다시 한 번 한 명 한 명 모두 거론하지 못 한 각 준비 위원들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참여하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화인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새롭게 자부심을 느낄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화 동문들이 보여준 파워와 역량은 탁월한 것이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이화 공동체가 되어,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화를 희망해 본다.

이정실 (2013 디씨지회 부회장)



총장님과의 만찬에서 생일축하케익을 자르며



총장님과 대 선배님들의 오찬



워싱턴 디씨 이화 코러스



워싱턴 디씨 이화미술작가 전시회-총장님과 함께



건강강좌를 하는 동문 최수영박사

장기자랑 일등한 남가주지회



Arizona 아리조나 지회

아리조나 이대동창회 역사

2003년, 10여명이 각 집에 돌아가며 모이기 시작

2004년, 초대회장으로 이명미를 뽑고, 30여명으로, 이대동창회 아리조나 지부로 정식 등록 그 후부터, 2대 회장으로 김선미, 3대 회장 김은미, 4대 회장 조한숙, 5대 회장(현재) 최문경으로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친목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경조사때 도움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KOWIN(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아리조나 지회)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남은 예산은 N.Y에 있는 이화재단에 장학금으로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아리조나 이대동창회 임원진

회장: 최문경 (생활미술과 69년 졸) / 총무: 최경원 (약학과 96년 졸) / 이사: 조한숙 (전자계산과 89년 졸), 김은미 (교육공학과 89년 졸), 이명정 (전자계산과 91년 졸), 유임숙 (건강교육과 84년 졸), 정승혜 (서양화과 85년 졸), 이명미 (약학과 81년 졸)



Atlanta 애틀란타 지회

매월 둘째 일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 Atlanta 지회는 매달 30-35명 가량 모여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매월 생일을 맞이한 동문과 새로 나오신 동문을 위해 축하 선물을 마련하고 생일 축하와 환영을 합니다.

합창부는 매월 둘, 네째 목요일에 모여 합창을 하고 이화 골프회는 매달 1회 골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2015년에 있을 총회를 준비하는 해로 2014년 재정을 총회준비, 모교 발전기금과 국제재단 장학기금에 주력을 두고 회원 증강, 기금마련에 힘쓰기로하였습니다.

1월 모임에는 총회를 열어 지난해 결산보고와 신년계획발표, 총장배 골프대회와 주소록 발간과 선교부 발족 계획을 발표하고 이화골프회 회장에 장명옥님이 수고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새해기념으로 빨간 동창회 수첩과 이화 달력을 나누고 총회 후 이사회에서 2015년도 동창회 회장에 김정회 회장을 선출하였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총회 준비 계획을 짜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나오신 정영수님, 송신홍님, 김아자님(의학, 63), 홍영자님(사회학, 61)과 오랜만에 참석한 유복렬 부총영사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 이화여대 교목이신 손운산 목사님께서 1월 17일-19일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내쉬빌에서 함께 계셨던 홍정자님을 비롯한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2월 모임에서 선교로 시작된 이화여대 설립취지에 맞게 선교부를 만들기로 하여 선교회 회장에 김순희 선배님이 맡아 봉사하시기로 하셨으며 구정맞이 윷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모정숙님(46년생, 신방과)께서 2월 5일 연합장로 교회에서 여성세미나를 하여 박연희, 김경원 동문이 참석하여 꽃다발을 드리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복렬 동문(Atlanta 부총영사님) 저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가 한국에서 2014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 이사회에서는 새 이사장 정문자님, 부이사장 김은숙님, 서기 조수헌님이 활동 하기로 했으며 2015년도 총회준비로 파트별로 팀을 나누어 신청하여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0여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치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진씨 (김순희 동문의 따님)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강을 영사관, 한인회, 민주평통, KOWIN 등 한인 단체들과 공동주최하여 열었습니다.

5월 한국총동창회를 방문한 김정회 회장의 보고와 기념품 증정이 있었고 박연희 동문의 "건강 호흡법과 바른자세로 걷기"에 대한 간단한 강좌 와 단체 촬영을 했습니다.

6월 모임엔 아름다운 난을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김아자동문(의학, 59년)댁에서 모여 난기르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모임에선 새로 오신 장공근님, 정정남님, 정호문님 환영과 김문희님 생일 축하 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1000불을 기부하기로 하고 10월에 있을 지회연합회 총회(샌프란시스코)에 대한 홍보와 참석자들 호텔비를 보조하기로 하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015년 지회연합회 총회 총무에 조수헌, 서기에 조성숙을 임명하였습니다.



Boston 보스턴 지회

이번 보스톤 겨울은 눈이 많이 온 관계로 2014년 2월28일에 뉴튼소재 "압구정" 식당에서 첫번째 보스톤 동창 모임을 가졌다.

같은 시간 새 임원진 이사장으로 이화 1회 졸업생이신 김지수(약학 49) 대선배님을 위시하여 회장 이문희(음대작곡 77), 부회장 박순혜(국문 73), 수년간 회계와 서기로 계속 수고하시는 서인숙(경영 73)동창님이 재임으로 결정되었으며 새로운 각오로 출범되었다.

지난 7월초 4번째 미팅은 부회장이신 박순혜 선배님댁에서 정겨운 모임을가졌다. 너무나 반갑게 7년만에 만나 뵌 선배님, 또 능력 많은 젊은 후배님들 여러분도 참석해 주셨고 한결같이 동창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고영복(영문 61), 김경애(의학 70) 선배님들을 위시하여 모든분들 각양 아름다운 색깔의 보석같이 자리를 빛내주셨다.

박순혜 부회장님이 떡갈비를 위시해서 손수 텃밭에서 기르신 여러가지 나물들은 환상이였다. 박부회장님은 이번 본교 총동창회 주최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 하셔서 너무 기뻤으며 교육의 도시 보시톤의 체면도 살려주셨다.

이 자리에서 김경애 선배님 도움으로 총동창회 "백만불 기금 모으기"에도 7년만에 오신 김선배님께서 바로 싸인을 하셨다. 모두 마음 속 깊이 이화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2014년의 보스톤 동창회는 연초에 선후배들이 모여 앞으로 더 발전되는 보스톤 동창회의 결속을 위하여 또 이화인으로써 매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좋은 의견들을 모았다.

* 이화인선교사 / 선교비후원
*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수여 / 대상--유학 온 이화 후배들과 현지동문 대학생 자녀
* 좋은 강사님 초빙 / 강연마련
* Plum Island (작년에 간 곳으로 너무 아름다워 많은 재요청)
* Tanglewood (보스톤 심포니와 윌리암스칼리지 내의 Clarks Museum)
* 손쉽게 나누고 싶은 요리강습 (특히 멋진 프로 수준의 케익 만들기를 소프라노 조유미씨가 수고하시기로 했다.)
* 뉴햄셔주에 캠프장을 소유--무료로 운영하시는 김지영 동창(교육, 82)댁에서 Camp
* 홍보에 힘쓰며 많은 동문들 참여와 함께 기금 조성도 주력한다. (Garage Sale)
* 새 주소록 발간

오는 7월 26일(토)에는 Boston Symphony가

있는 산속 연주지인 Tanglewood와 Clarks Museum Trip을 갈 예정으로 오늘도 아침부터 커피와 함께 탱글우드에서 듣게 될 "라프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으며 2시간 반 동안의 Driving time에 동창님들께 들려 드릴 CD를 고르는 일이 무척 행복했다.



Cincinnati 신시내티 지회

1. The Cincinnati Chapter was founded in Sept. 2003 with 26 Ewhains.
2. The Board Members: President–Young Chai Kim, English '59; General Secretary–Hae Sun Kim, Foreign Language Edu. '69; Treasurer–young Ja Bae, Journalism '69; Secretary –Soon Myeung Kang, Pharmacy '71.
3. We meet 4 times a year on the 2nd Fridays, sharing our Ewha news. Every year, our chapter sends our Alumnae membership dues to the Seoul Hqtr. Also, participate in the "Sun-bae Ra-men" campaign.
4. On Fri. May 09, we had special guest speaker, Prof. Yunjae Jung, M.D., Ph.D. at the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 -cine. She graduated with BS in Medicine in 2002 from Ewha, received her Ph. D. in Medi -cine in 2008 from Ewha. Dr. Jung was doing her research with the team at the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Her topic was "The Physiologic Role of Eosinophil present in the small intestine". Eosinophils are multifunc -tional leukocytes (name of cells) that reside in the several tissues, most abundantly in the gastrointestinal lamina propria (LP). Dr. Jung was a main member of the Research Team at the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and during her one year period, her team finalized their research and their research papers were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monitors the new results. This is a great success by Dr. Jung and her team, and will bring much honor to her, the hospital, and to Ewha.
5. During June 20 through Sept. 11, 2014, there is an art exhibition under "Power of Place, Celebrating International Women Artists" at the Cincinnati YWCA. Our Ewha alumnae, Eunshin Hwang, (Applied Art '70), and Hei Kyung Byun (Sculpture '73)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Congratulations on your achievements!
6. President Young Chai Kim will combine her role with "Supporting Trustee" also this year, along with the current President position.
7. Our next meeting will be held on Fri. Sept. 12, 2014.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t the Conference in October.



Denver 덴버 지회

이화 여자대학교 덴버 동창회가 창립 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덴버에서, 2009년 북미주 이화총동창회를

주최했었고, 실상 적은 인원으로 알차게 잘해 낸 행사였습니다. 콜로라도 지회는 금년 목표를 내실에 두고 있습니다.

회원들간에 인간관계, 만나고, 얘기 나누고,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은 관계를 더욱 두텁게 엮고자 합니다. 이월초 떡국 모임 후, 유월초에 피크닉을 갔고, 복 맞이 냉면 모임을 한 번 하고, 초가을에 피크닉을 또 한 번 갈 예정입니다.



Houston 휴스턴 지회

휴스턴 지회의 3월 모임은 Houston Fine Art Museum의 부속 museum이라 할 수 있는 Bayou Bend Collection and Gardens에서 가졌습니다. Bayou Bend Collection and Gardens는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의 장식 미술과 회화,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철쭉이 만발하여 휴스턴의 봄을 맘껏 즐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휴스턴 지회에서는 매년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휴스턴 지역 크리스천 한인 여학생들중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모임은 장학금 기금 모금을 위한 거라지 세일로 대신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물건 기부, 당일 봉사, 그외에 현금 도네이션 형식으로 참석해주셔서 성공적이고 즐거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5월 모임은 두 명의 여학생들에게 1,000불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선정된 두 명의 학생들은 뇌성마비를 극복하며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과 또 다른 학생은 휴스턴 최고의 공립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방학동안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등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랑스러운 한인 학생들이었습니다.

휴스턴 지회는 덥고 무더운 휴스턴 여름동안 긴 휴식기를 가진 후 9월 달에 다음 모임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Lansing 랜싱 지회

랜싱 지역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는 1995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인 임길진 박사님께서 Dea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ichigan State University로 오심에 힘입어 이곳 한국 community가 활성화 되면서 이대동문회도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50년도 약학과를 다니신 선배님부터 60년도 동문 5명, 70년대 동문 6명 등등 고정적 회원이 있었고, 유학생등 합해 41명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 노후로 인한 타주 이주나 2008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유학생도 감소했습니다.

랜싱지회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것은 2003년 11월 미국판 한국일보에 조그마하게 동문회 모임 기사가 나간 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 텍사스 북미주지회 연합회 일정 카다록의 디자인협조를 한적이 있습니다.

Minnesota 미네소타 지회

유난히도 추었던 미네소타 겨울의 끝자락인 3월 22일과 튤립이 한창이던 5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동창회모임을 가졌다.

심현숙(사회사업, 62) 동문 자택에서 열린 3월 22일 모임에선 일년에 500불씩 후원해 온 MAKA (Minnesota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장학금에서 이화장학금을 받은 수상자 소식과 함께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 논의가 있었다.

수목원에서 열린 5월 31일 총회에선 국제재단 장학금 기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임원단 선출이 있었다. 새회장에 김성숙(사회, 85), 부회장에 홍성주(경영, 89)동문이 선출되었다. 미네소타로 이주해 처음으로 미네소타 동창회에 참석하신 안종완 동문 환영과 80세 생일을 맞으신 주재강 동문 축하 자리도 함께 가졌다.



New York 뉴욕 지회

11월 8일, 뉴져지 소재 Double Tree Hotel에서 130여명에 달하는 이화동창과 사위가 모여 연례 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안부를 묻고 담소하며 서로의 사는 모습들을 화기애애 하게 나누며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 1년간 모교의 발전상을 슬라이드를 통해 같이 보는 것과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의 감사 인사말이 곁들여져 이화 동창으로써의 보람과 긍지를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남후남(약학, 62)동문이 PC USA (미국장로교단) 소속 동부 한미 노회의 16대 노회장에 첫 여성장로 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2월 6일, 확대 임원회가 연례만찬 품평회 겸 쫑파티로 플러싱 소재 삼원각식당에서 있었습니다.

2월 6일, 창립자인 김광희(화학, 67)동문의 뒤를 이어 KAFSC(가정상담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윤정숙(사회학, 03) 동문은 가정을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대회를 5월 1일 개최하기 위한 VIP 리셉션과 Press Release를 맨해튼 소호지역에서 가졌습니다.

3월 4일, 맨해튼에서 정기 총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에 이어 2014~2016년까지 2년동안 동창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이 최성남 이사장(약학, 70), 김기령 회장(영문, 81), 박영숙 부회장(경영, 86)등 새로 결성되었습니다.

4월 9일, 임기를 새로 시작한 임원들의 간담회가 플러싱 소재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4월 11일,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글로벌어린이재단(GCF) 뉴욕지부회장 전명혜(언어학대학원, 80)동문이 맨해튼 세인트 에피스코 교회에서 음악회 및 만찬으로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월 21일, 지역모임의 하나인 중부 뉴져지 모임이 강정임 동문댁에서 있었습니다.

이보영(피아노, 56)동문이 제 11회 한,중일 대한민국동양 서예대전에서 입선했습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경희궁미술관 전관에서 전시가 됩니다.

이원영(생활미술, 68)동문이 2014 Philadelphia Flower Show에서 Best in Show Award를 비롯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7월 19일, 김성혜(서양화, 86)동문댁에서 BBQ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화 사위들 포함 30여명의 동창이 모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로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젊은 동창들 찾아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두가 오랫만에 만나서 웃음꽃이 만발하여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정도였다.

선선해 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기 아쉬워 하면서 ....



좌측(핑크색옷)부터 안희숙(국문, 65), 강정애(생미, 63), 최민희(화학, 63), 김평화(사회,68), 신귀현(교육, 68), 정행자(생미, 68), 김민자(생미, 64)
뒷줄 왼쪽부터 송원섭(과학교육, 87), 한상화(기악, 70), 신옥숙(약학, 60), 구명숙(약학, 71), 손영의(교육, 72), 오영주(성악, 87), 이구희(영문, 80), 김미진(도예, 79) 는 사진찍느라 없음

Portland 포틀랜드 지회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5월 모교의 "메이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났다. 이 날은 세 분의 새 동창님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다. 구명숙 동창님, 신옥숙 동창님, 오영주 동창님 세 분의 동창회 참여소감은 생각했던것 보다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동창소식에는 전상화 동창님 아드님이 이웃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판사가 된 것에 대해 모두 나의 기쁨이 되어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다. 김미진 동창 오레곤주 도자기 협회전에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서울 동창회에 동창회비를 좀 넉넉하게 보내자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동창 한 명 한 명이 노력하여 숨은 동창 찾아내어 다음 번 모임에는 한 명이 한명씩 짝지어서 모이

Orlando 올랜도 지회

2014년 3월7일 샌포드 웰컴센터(Sanford Welcome Center)에서 올랜도 지회 회원 18명이 모여 신 혜(섬유예술, 92)회원의 공공건물 섬유 설치작업을 관람하였습니다.



Sanford Welcome Center

2014년 2월 24일 샌포드 웰컴센터(Sanford Welcome Center)에서 신 혜(섬유예술, 92) 회원의 공공건물 설치작업전이 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아트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United Arts of Central Florida)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완성한 100년된 공공건물에 민들레 홀씨를 연상시키는 섬유조형물 45점을 설치하였으며 전시일정은 1월24일부터 6월19일까지입니다.



5월 모임은 올랜도 지회 회원 7명이 오전 10시 30분에 Keke's 식당에서 브런치를 나눈 후 12시부터 pottery class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공예교실)에 참여하여 각자의 작품을 제작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지회

필라델피아 이화여자대학교 지회에서는 매달 첫번째 월요일에 남산 레스토랑의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건강 세미나와 재정세미나, 요리강습 뿐만아니라, 중국의 역사세미나, 꽃꽂이 강습등 다양하고 유익한 모임으로 동문의 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뮤지엄 탐방이나 시티의 역사탐방 및 하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배님들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후배님들이 함께 모일때마다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필라델피아 지회는 채워지고 있답니다.



6월에 동문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올드시티 투어를 하면서 찍은 사진

St. Louise 세인트루이스 지회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매달 모이는 '진선미'(계모임)모임을 통해서 동창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동창들간에 경조사를 같이 나누며 이화의 자매의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회에 등록된 동창들은 30명쯤 있으나 매달 모이는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여서 이화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지회는 작은 지회지만 모교와 모교 총동창회를 위해서 열심히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기 모임에는 모두들 바쁜 일들이 겹쳐서 작은 수의 동창들이 모였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모두들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루" 중국식당에서 송경자(약대, 65) 기도로 시작 했습니다. 최길자 서기 보고(화학, 65), 이수자 회계보고(가정, 63)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이화 역사를 기념하는 (2016년이면 창립 130주년이되는 찬란한 역사를 기념하는) " 해외동창기금" 백만불 모으기"에 (북미주에 우리 이화 동창들이 10,000명인데 그중 1,000명이 5년동안 $500 해주시면 백만불이 됩니다.) 우리 세인트루이스 지회 이름으로 한 구좌를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일년에 $100씩 5년에 $500모금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 지회에서 개인으로 여러 동창들이 이 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이화 국제재단에 보냄)

저희 지회 임원은 이사장 최경선(영문 61), 회계 이수자(가정 63), 서기 최길자(화학 65), 회장 정선주(성악 68)입니다.

지난 5월 30일 "May Day" 행사에 회장 정선주가 참석했습니다. 모교의 눈부신 발전에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자랑스런 후배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에서 특별히 조종남 회장님께서 해외 동창을 위한 점심 초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화여대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Seattle 시애틀 지회

바다와 호수, 신록이 우거진 산과 계곡들, Opera, Symphony, Museum, 그리고 Mariners에서 Seahawks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Seattle 속의 이화여대 동창회는 매월 월례회로 여러가지 program을 가지고 모이며 문화부, 음악부, 골프부, 걷기/등산부, 여행부, 레크리에션부들의 각부행사로 동문들이 바쁘게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음악부 주체로 piano trios, cello solo, violin duet, 4hands piano, vocal 등으로 이화 기금모음 음악회를 아름다운 산장에서 성공적으로 가졌고, 골프부에선 Canada Harrison Hot spring으로 원정 골프를 다녀 왔습니다.



매년 국제재단에 장학금을 보내고, UW Jackson School 에 장학금을 보냅니다. 그 외, 지역사회를 위해 불우이웃돕기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예자 고문께서 중앙일보에서 주는 사회복지상을 받으셨고 또한 Tacoma 지역의 홍보대사로 뽑히셨습니다.

이희정 동문께선 Federal Way 한인회 회장으로 연임되셔서 훌륭한 이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S. California 남가주 지회

2013년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
12월 8일, Sheraton Los Angeles Down Town Hotel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총회 및 송년파티가 개최되었다. 제 1부 정기 총회는 장계원(도서, 76) 동문의 사회로 이수훈(화학, 59) 목사의 기도, 교가제창, 김정순(간호, 75) 회장의 환영인사, 양이신(제약, 83) 회계의 재정보고,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박화자(간호, 66) 이사장의 신임회장과 이사장 인준 발표, 장계원 신임회장과 김주경(관현, 77) 신임 이사장의 인사말, <메시아> 수익금 장학생으로 본교 하계학교에 참석한 Janet Linares(C.S.U.L.B.)의 감사인사, 끝으로 박화자 이사장에게 감사패 증정, 순서로 이어졌다. 제 2부는 김영란(영교, 78) 동문의 사회로 최윤석 씨의 피아노 연주와 동문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다. 제 3부는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사회로 남가주동창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가 펼쳐져 노래, 율동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임원회
올해에는 1월 29일, 2월 20일, 3월 13일, 3월 20일, 4월 9일, 5월 8일, 7월 24일에 걸쳐 일곱 번의 임원회가 열렸으며 평균 2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여러 가지 보고와 계획이 토의된 가운데 올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3월 24일 골프대회 *4월과 11월 동창회보 발송 *5월 18일 동문합창단 정기연주회 *9월 초 선배님들과의 추석맞이 *10월 중 야유회 *10월 30-11월 2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12월 7일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 *동문주소록 발간 *지역 모임의 활성화와 리더 선정.

이사회
3월 6일,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이사회(이사장 김주경)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신임이사 소개, 서기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장계원 회장의 남가주동창회 일정 및 행사 계획 발표(임원회 기사 참조)와 황혜원(무용, 85) 회계의 2014년 동창회 재정보고가 있었다.

골프대회
3월 24일,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제 11회 총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골프 대회는 동문자녀 장학기금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치러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약 130여 명의 동문과 Guest가 참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등록을 받았으며 게임은 12시부터 시작되었고 저녁식사 후에는 시상식과 경품추첨이 있었다.

제 10회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
5월 18일, 제 10회 남가주동문합창단 단장 장경해(피아노, 75) 정기연주회가 윌셔연합 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지휘는 김영숙(성악과, 92) 동문, 반주는 주희정 (피아노, 08) 동문이 맡았으며, 30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피아노 반주 외에도 오르간과 플룻, 바이올린도 곁들여져 성가, 가곡, 민요 등 모두 열두 곡의 노래가 연주



되었다. 독창에 안정화(성악, 84) 동문, 이중창에 구은정(성악, 98), 김종숙(성악, 00) 동문, 바이올린 독주에 유승경(바이올린, 99)동문이 출연했고, 찬조출연한 어린이합창단이 뮤지컬을 선보였으며, 김영교(영문, 63), 정효정(영문, 68) 동문의 시로 작곡된 노래가 초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600여 명의 친지, 동문들은 "꽃밭에서"와 교가를 다함께 불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본교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끝난 후에는 모두 친교실에 모여 다과를 나누며 담소했다.

본 동창회보 특별상 수상
5월 30일, 본교 창립 12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거행된 회보경연대회에서 남가주 동창회보가 특별상을 받았다.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 수상이다.

동창회 산하 각 부 활동
선교부, 합창부, 녹미회, 건미회, 골프부, OC 이대 배꽃회, 간호대학 등이 매주, 매달, 또는 일 년에 서너 번씩 모임을 갖고 맡은 바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창회 산하 각 부 활동
선교부: 매주 수요일, 20여 명이 모여 열방에 흩어져 있는 동문선교사 130여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양로원을 방문하여 합창으로도 선교를 하며, 캐나다, 모로코, 캄보디아 등 각지에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다. **합창부:** 5월 18일, 제 10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끝냈고, 9월부터 다시 모임을 갖는다. **녹미회:** 7월 14일 LA County Museum 에서 전시되고 있는 조선왕조 유물전을 관람했으며, 9월 26부터 10월 3일까지 Lee & Lee Gallery에서 녹미전이 있을 예정이다. **건미회:** 3월 29일, 모임을 갖고 2014년 행사에 관해 토의했다. **골프부:** 7월 14일에 올해의 첫 골프대회를 가져 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했다. 9월 4일 두 번째 골프모임이 있고, 일 년에 5, 6번 정도 정기적으로 골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O. C. 이대 배꽃모임:**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간호대학:** 1월에 18명의 회원들이 모여 신년모임을 가졌다.



N. California 북가주 지회

북가주 지회는 1964년에 발족되어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매월 첫 토요일 정기 모임을 갖는다.

새해 첫 모임으로 1월 4일 Hillsborough 곽정연 동창댁에서 윷놀이를 하며 신년 맞이를 하였다. 2월 모임은 오클랜드 삼원회관에서 모였다.

3월 1일 정기 총회는 Sunnyvale Senior Center 에서 있었다. 앞으로 2년을 이끌어갈 동창회장 선출이 있었으며 24대 회장으로 제갈숙경(관현 79)이 참석 전회원의 지지로 선출되었다.



4월 5일 정기모임은 산호세에 있는 산장에서 가졌는데 신임회장과 임원진들이 회원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4월 12일(토)에는 UC Berkeley International House Spring Festival 참여 기금 모임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매년 각국의 총영사관들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데 특히 금년에는

한국이 주도국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우리 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3개의 booth를 마련하여 한복을 입고 봉사하였다. 빈대떡을 직접 지지며 김치도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5월 3일 동창 모임은 Mother's Day 기념으로 버스를 대절하며 Sausalito에 나들이를 하였다. Spinnaker에서 브런치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도 하였다.



5월 31일에는 조종남 총동창회장님의 해외 동창들을 위한 환영 오찬에 저희 지회 동창들도 참석하였다.

6월 7일 모임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Asian Art museum 한국관에서 한국문화를 감상하고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며 예술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7월 5일 모임은 곽정연 동창댁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뮤지컬 연습을 했다.

7월 12일에는 GCF 기조연설을 하시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선욱 총장님과 우리 지회 동창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Toronto 토론토 지회

토론토 지회는 3월 3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14년 지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장 홍현정(피아노, 82) 동문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계속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는 동문회에서 선후배가 가까워지며 함께 할 수 있는 한 해를 목표로 정해 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월 두차례 동문 목사님들을 모시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렸으며 각 동문들이 준비한 비빔밥 재료로 "이화표 비빔밥"을 나누며 2부 순서로 노래 교실 시간도 가졌습니다.

3월부터 새로 시작된 줌바 교실은 성황리에 신나게 진행되었고 토론토의 지루한 겨울을 조금이라도 잊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부터는 매주 두번째 화요일에 동문들과 함께 하는 골프 모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8월 16일엔 각 대학 대항 골프 대회가 열릴 예정 입니다.

6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반에 토론토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Edward Garden에서 토요 산책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 28일에 열렸던 야유회에는 날씨도 환상이었고 70여명의 동문, 부군님들 가족들이 모여 알차게 준비한 게임들과 율동, 줄다리기를 하며 하루를 신나게 즐겼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해 새로 계획된 9월 5일에 열릴 행사는 토론토 최초로 갖는 녹미전과 동시에 음대생 중심으로 미니 음악회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화의 향기가 가득한 의미있는 행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엔 크리스마스 파티가 Presidente banquet hall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동문회의 모든 사진과 활동 모습이 www. Ewhatoronto.com 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Washinton D.C. 워싱톤디씨 지회

1월 24일 임원회의 및 이사회를 김지완 회장 자택에서 가졌다. 이 날 40명의 동문들이 모여, 일 년간 활동할 계획등을 함께 나누었고, 새로운 웹싸이트(http://ewhadcchapter.com)의 개통을 알렸다.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 권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월 7일 우래옥에선 초,중,고등학생을 둔 동문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 상담가로 활약하고 있는 허혜경(교육 88) 동문이 초빙되어 대학 진학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누어 주었다. 2월 21일에는 워싱턴 가정 상담소에서 재정 세미나를 열었다. 재작년 강의에 이어 두 번째 초빙되어진 강사 손옥윤(사학 85, CPA, CFP) 동문은 미국 세법, 자산관리 및 은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0대 지회는 1월 신년회장 편지에서 알렸듯이 취미별 소그룹 조직 및 활성화에 힘을 쏟았고, 그 일환으로 "이화 문학인의 모임," "이화 골프 Club," 을 조직하여 만남을 시작하였다. "이화 문학인의 모임"은 함계선 동문(피아노, 79)의 주도하에 세 번의 모임을 가졌고 첫 모임은 3월 21일 "철자법 강의"로 함계선 동문이 강의하였다. 두번째 모임은 4월 18일 이덕자 동문(국문, 69)댁에서 "소설 <달라스 블루>작가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모였다. 모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덕자 동문은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외에도, 1979년 <여성동아>에 장편소설 "나팔수"로 당선되었고 이 소설은 영화화되었다. 5월 9일엔 "수필작법"이란 주제로 이덕자 동문자택에서 강의하였다.

4월 23일에는 National Gallery of Art 견학으로 김지애(서양화 85) 동문과 함께 미국내에서 유일하다는 da Vinci 의 작품을 시작으로 각 고전 시대별 걸작과 현대의 작품들을 둘러 보았다. 김지애 동문의 탁월한 작품 해설과 배경 설명에 모두들 큰 찬사와 박수 갈채를 보냈다.



5월 17일 피크닉엔 70명이 넘는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큰 잔치의 시간을 가졌다.



5월 23일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지내신 하재은 박사를 모시고 "문학과 음악" 이란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하 박사는 인생을 회고하며 중요한 시기마다 영향을 끼친 곡들을 선정하여 동문들과 즉석에서 함께 부르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이화 Golf Club"은 손현숙(화학 83) 동문의 주도하에 4월 9일과 5월 14일 두번의 만남을 가졌다. 오랜 휴식 기간을 가졌던 이화 Golf Club의 부활로 많은 동문들은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6월 7일 최숙자(도서관, 69) 동문 자택에서 새 동문 환영회 및 대선배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40명이 넘는 동문 및 가족들이 왔고 특히 39년 보육과를 졸업하신 대 선배님이신 윤순자 선배님께서 와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아울러 한국 음악과(거문고 전공)에 진학중 American University에 교환 학생으로 온 황주현(2015 졸업 예정)동문의 특별 연주 시간이 있어 더욱 흥에 겨운 만남의 시간이었다.



Hawaii 하와이 지회

하와이 지회는 2014년 5월 31일 토요일에 타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름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배님들을 비롯한 많은 동창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좋은 음식도 맛보고 오랫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특히 게임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돌려놓은 듯 소녀의 마음으로 맘껏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동창회 장학금 소식

1.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되는 지회별/동창 그룹별 장학금 현황 (2013 & 2014년)

지회별 장학금	2013 지급액	장학금 수혜자	2014 지급 예정액
남가주 지회	$10,000	최지수 (전자공학 4) 외 3명	$10,000
뉴욕 지회	$15,000	정선화 (전자공학 3) 외 3명	$25,000
디트로이트 지회	$7,500	신예나 (국제학 2) 외 2명	$7,500
북가주지회	$10,000	유수정 (생명과학 2) 외 2명	$10,000
시애틀 지회	$2,500	송현지 (교육 2)	$2,500
워싱턴디씨 지회	$10,000	이지수 (식품영양학 3) 외 3명	$10,000
워싱턴디씨 국제하기대학	$1,300	Christine G Lee, Alyssa R Abraham	$1,500
휴스턴 지회 ('14 신규)			$5,000

그룹별 장학금 이름	2013 지급액	2014 지급 예정액
LA영락교회 배꽃회 장학금	$1,000	$2,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20,000	$20,000

* 이밖에 많은 지회들이 장학금으로 모교를 돕기 위해 기금을 적립 중이며, 2015년부터는 보스톤 지회, 동북 오하이오지회 등의 장학금이 모교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로는 의대에 이어 약대, 공과대학 등이 기금을 적립 중에 있다.

2. 각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회별 장학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대상	지급액	수혜자
남가주 지회	- 모교 하기 대학 - 동문 자녀	$6,358 (2명) $2,000 (2명)	Sonia Melendez, Janet Linares Stephanie H. Youn, Steve Lee
뉴욕 지회	- 지역 교포 자녀 대학생 - 이대 졸업생으로 대학원생	$4,000 (2명) $3,000	Kalene Lee, Lynn Ma Eunji Lee
밴쿠버 지회	동문 or 동문 자녀	$1,000	
보스톤 지회	동문 자녀 대학생	$500	
미네소타 지회	12학년	$500	장지원
시애틀 지회	- U. Washington 한국어과 학생 - UW Broad. & Journalism 학생	$1,000 $300	Brigit Stadler Jacky Graham
애틀랜타 지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통해 11학년-대학원생	$1,000	하승우
휴스톤 지회	Christian 한인 여대생	$2,000 (2명)	손예희, 홍예지

2014 북미주 지회장 명단

지회명 (주)	지회장	전공	졸업
Alaksa (AK)	이상현	교육	75
Arizona (AZ)	최문경	생활미술	69
N. California (CA)	제갈숙경	관현악	79
S. California (CA)	장계원	도서관	76
San Diego (CA)	이광희	의류직물	73
Denver (CO)	임은혁	약학	72
Washington D. C. (DC)	김지완	문헌정보	89
Orlando (FL)	신 혜	섬유예술	92
Atlanta (GA)	김정회	약학	79
Hawaii (HI)	오해숙	사회	79
Chicago (IL)	성유나	영문	79
Kansas (KS)	강명숙	제약	74
Boston (MA)	이문희	작곡	77
Baltimore (MD)	조성수	식품영양	72
Detroit (MI)	박혜현	생활미술	72
Lansing (MI)	조미영	동양화	85
Minnesota (MN)	김성숙	사회	85
St. Louis (MO)	정선주	성악	68

지회명 (주)	지회장	전공	졸업
Las Vegas (NV)	최계자	신문	65
New York (NY)	김기령	영문	81
Cincinnati (OH)	김영채	영문	59
Cleveland (OH)	김영미	영어교육	82
Portland (OR)	김미진	도예	79
Allentown (PA)	김여흡	영문	54
N.E. PA (PA)	조화숙	동양화	72
Philadelphia (PA)	이경희	무용	87
Rhode Island (RI)	이길자	의학	66
Nashville (TN)	이명애	의학	76
Houston (TX)	백화정	교육심리	87
Northern Texas (TX)	김미리	도서관	83
Seattle (WA)	박정혜	체육	71
Edmonton / CANADA	조용옥	국문	73
Montreal / CANADA	이채화	무용	76
Ottawa / CANADA	한은신	수학	82
Toronto / CANADA	홍현정	피아노	82
Vancouver / CANADA	권갑향	사회	71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Washington D.C.)



2014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스케줄

Oct. 30 (Thursday)

3:00pm ~ 10:00pm	호텔 체크인, 총회 등록 시작
8:00pm ~ 10:00pm	북미주지회 연합회 이사회
9:00pm ~ 11:00pm	친교의 시간

Oct. 31 (Friday)

7:00am ~ 8:30am	아침식사
9:00am ~ 11:00am	취미반 (합창 연습등)
9:00am ~ 4:00pm	관광 (Napa Winery)
4:30pm ~ 5:30pm	자유시간
6:30pm ~ 10:00pm	총장님과의 만찬, 기념 촬영
10:00pm ~ 11:00pm	친교의 시간

Nov. 1 (Saturday)

7:00am ~ 8:30am	아침식사
8:30am ~ 10:30am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11:00am ~ 4:00pm	관광 (San Francisco City Tour)
4:30pm ~ 5:30pm	취미반
6:30pm ~ 10:30pm	연례만찬, 기념촬영, Talent Show
10:30pm ~ 11:30pm	친교의 시간

Nov. 2 (Sunday)

7:00am ~ 8:30am	총동창회장님과의 조찬
9:00am ~ 10:00am	예배
10:00am ~ 11:30pm	총장님과의 대화 및 작별인사

- 시간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4 년 총회 참가 신청서

(9월 30일 마감)

이름	한글			
	영문			
소속지회				
졸업학과		졸업연도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전화번호	Home	Cell	Work	
이메일				
동행자수		동행자 이름		

행사날짜	회비내역	비용	수	합계
10월 31일(금)	나파 와이너리 관광	$85		
	총장님과 만찬	$100		
11월 1일(토)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	$70		
	총회 만찬	$100		
			연합회 총회 등록비	**$20**
			총회 참가비 총액	

- 참가 신청서와 총회 참가비를 개인수표나 Money Order 로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요.
- 보내실 곳: EWHA, P.O. Box 2114, Sunnyvale, CA 94087 (수표 payable to EWHA)
- 총회 관련 문의: 2014EwhainSF@gmail.com / 윤영신 408.206.6358
- 호텔 숙박 문의: Hyatt Regency SF Airport / 650.347.1234 / 800.916.4339



1960년 완공된 미술관.박물관 (조형예술대학관)



1970년대 이화재단에서 사용한 새 집 (1961)



1966년 완공된 인문.사회대학의 요람, 학관



사범대학의 전용건물 교육관 (1967)



생활환경대학관 (가정관,1977)



전문 오디오 시설을 갖춘 음악관 (1981)



이화.신세계관 자리의 구 사회복지관 (1974년)



여성경영실무교육을 위한 경영관 (198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PO Box 2114, Sunnyvale, CA 94087
www.EwhaSF.com / 2014ewhainsf@gmail.com

PRSRT STD
U.S. POSTAGE
PAID
SUNNYVALE, CA
PERMIT # 291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Since 197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은 IRS 501(c)(3)로 등록되어 이화여자대학교를 후원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내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국제재단에는 110여개의 개인장학기금, 28개의 북미주 각 동창지회장학기금, 전공별 기금, 이화해외동창기금, 추모기금, 부부 성함으로 이루어진 장학금 등 여러가지 기금을 통해 이화 후배들의 학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기금, 영구적 기금, 유언을 통한 사후 기부 등 자세한 기금 종류와 후원 방식은 국제재단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475 Riverside Drive Room 1505, New York, NY 10115
Tel. 212.864.5759 / Fax. 212.864.2552 / ewhafdn@gmail.com
www.ewhafoundation.org